

대학 미투운동의 응결점들

– B시 P대학의 경험을 중심으로*

최나현** · 김영***

| 목차 |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 검토
 - 1) 교수 성폭력 만연 요인
 - 2) 대학 반성폭력 운동 주체의 탄생 경로
 - 3) 대학 반성폭력운동과 다양성의 정치
3.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4. 'P대페미'의 탄생과 '페미니스트 스펙타클'
 - 1) '퀵페미'의 등장, 저항 행동의 마중물
 - 2) '결페미'의 탄생: 함께 커지는 힘
 - 3) 대학원생 연대모임 '한줌단'
 5. '미투 그 후' 활동의 형성과 전개
 - 1) '친밀성의 공동체'와 정치적 목소리
 - 2) 각자의 자리에서
 6. 결론 및 함의

| 초록 |

이 글은 2018년 P대학 미투운동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대학에 안정된 여성운동조직 기반이 없었음에도 미투운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까닭을 파악하고, 미투운동 참여 경험이 참여자에게 미친 영향과 후속효과를 확인했다. 2018년 3월초 P대

* 유익한 논평으로 논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과 연구참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 연구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해 수행되었다.

** 제1저자: 부산대학교 nahyun_choi@pusan.ac.kr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bominsurge@pusan.ac.kr

학에서는 연이은 미투 고발과 함께 스스로를 '대페미'라 명명하던 '편페미', '겉페미', '한줌단'이라는 세 주체가 나란히 등장했는데, 이들은 학생운동 조직에서의 훈련과 여성학 수업에서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미투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활동 과정에는 여성학 행사에의 참가자 운집과 미투운동 선전물이 캠퍼스를 가득 메우는 '페미니스트 스펙타클' 전술이 작동됐다. 이는 참여자들의 연대감을 강화할 뿐 아니라 운동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며 교내 구성원의 미투운동 지지 의견 표명을 활성화했다. 한편, 미투운동 참여 경험은 참여자들이 새로운 페미니즘 소모임을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실시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페미니스트로서의 구체적 실천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토대였다. 이 연구는 대학 여성운동의 재활성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미투운동의 불씨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대학 미투운동, 여학생 운동, 여성학 수업, 운동권, 페미니스트 스펙타클

1.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2018년은 미투운동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6년 10월 “오타쿠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시작한 반성폭력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2018년초, 서지현과 김지현의 고발은 더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전환점이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한국 여성의 ‘보편적’ 경험임을 알렸고(권김현영, 2018: 342), ‘나도 당했다’를 넘어 ‘함께 하겠다(with you)’를 선언하며 안전하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 흐름에서 대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8년 개학과 더불어 교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의 붓물이 터졌다. 15.2%의 대학에 미투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고 34.4%의 대학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건수가 증가했다(신상숙 외, 2019: 69).

대학은 한국의 반성폭력운동에서 언제나 주요한 전장의 하나였다. 한국 사회에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확산된 계기는 1993년 서울대에서 신정휴 교수의 조교 성희롱 폭로였다. 1990년대 대학 여성운동의 핵심영역이었던 반성폭력운동은 일상의 다양한 성적 차별과 폭력을 ‘성폭력’으로 문제화하여 대학의 젠더위계질서를 여성의 경험에서 재구성하고 ‘공동체’로서의 대학공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신상숙, 2007; 김보명, 2008; 한중태, 2014; BRIDGE, 2018). 2018년에도 대학은 거리 및 사이버 공간과 더불어 반성폭력 운동의 주전장의 하나였다.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봇물 터지듯 터진 대학미투운동은 공적 교육공간조차도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님을, 성폭력 가해자가 예외적 일탈자가 아님을 드러냈다. 대학미투운동은 성폭력이 의명성 아래에 숨은 사이버 공간이나 위계적 조직운동을 특징으로 하는 임금노동의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범람하며 여성을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는 성차별 기제임을 드러내며 일상의 대면적 공간 속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조직해냄으로써 미투운동의 파고를 고조시켰다. 중소도시에서 그 힘은 도시 전체의 여성운동을 재활성화시키는 정도였다(김혜경, 2022).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 미투운동의 구체적 경험에 대한 연구가 풍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2018년에 대학 미투로 언론에 보도된 대학·학과만 해도 30곳이 넘음에도 불구하고(유현미, 2022b: 6) 개별 대학에서 전개된 미투운동사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8년 미투운동 이전에 전개되었던 동국대 사회학과 투쟁사례와 서울대 사회학과 투쟁사례에 관한 연구뿐이다(박경태, 2018; 유현미, 2018, 2022a, 2022b). 2018년 미투운동에서 대학미투운동이 가졌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의외이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대학미투운동의 사례연구는 대학이라는 공적 교육기관을 구성하는 여러 주체 간의 교수성폭력에 대한 대응동학을 분석해 대학 내 여성운동의 발전과 성평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규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P대학에서도 2018년 3월 개강과 더불어 교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2018년 1학기 동안 미투운동이 격렬히 전개된 결과 6~7월 사이 두 명의 원로 교수가 해임되었다. 한 명의 가해 교수는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 다른 한 명은 학위 논문 심사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은 명백했다. 그러나 서울대에서 갑질교수를 대학에서 추방하기 위해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2년에 걸쳐 장기천막농성 및 단식투쟁, 집단자퇴서 제출 등의 극한 전술을 구사하며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이라는 결과밖에 얻지 못했음(유현미, 2018)을 생각하면 국립대학인 P대가 정년퇴직을 앞둔 두 명의 원로 교수를 즉각 해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비수도권 대도시인 B시의 P대학에서 2018년 봄에 진행된 미투운동의 전개과정과 참여자들의 경험을 검토해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 주체가 형성되었던 경로를 분석하고 2018년 여름 이후의 확장에 관해 살펴본다. P대학 사례를 분석하는 이유는 P대학 미투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대학반성폭력운동 주체가 형성되는 다양한 경로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P대학 미투운동은 2018년 봄의 단발적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대학 내외에서 성평등운동을 활성화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대학 미투운동 참여자들의 활동 방식은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의 실천에서 두드러졌던 익명성의 강조와 대조적이다. ‘불편한 용기’ 집회 등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실시된 직접 행동 현장에서는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쓴 참여자가 대부분이었다. 보복 폭력과 페미니스트 낙인이 초래하는 배제와 차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키보드워리어로서만 실천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젊은 세대 여성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상기한다면 대학이라는 일상공간에서 학생들이 반성폭력 투쟁에 자신을 걸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만든다. 대학에서는 대자보

나 포스트잇을 부착하는 장면을,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강의실에 항의 방문하는 모습을 지인이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의 수업을 들었거나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대학미투운동의 활동 주체들은 거리와 광장에서의 실천과는 또 다른 부담을 안고 실천행위에 참여하게 된다. 익명성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중소도시의 경우 페미니스트들이 거주지역에서는 집회 참여는 물론이고 심지어 헤어스타일, 페미니즘 서적 소지까지도 엄격히 자기검열 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이정인, 2021; 김태영·육주원, 2022; 김하영, 2022) P대학에서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격렬한 미투운동이 전개되고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¹⁾.

2017년 가을에 개최된 한 학술행사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인가요? 어떤 활동이 있기는 했었나요?”라는 참가자의 질문(지영경, 2018: 42)이 나오는 정도로, 2005년 이후 학내 여성주의 활동의 명맥이 끊어졌던 P대학²⁾에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는 미투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걸까? P대 미투운동 주체형성 경로 및 확산과정을 분석하고, 미투운동 참여 경험이 참여자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는 이 연구작업은 대학 여성운동 재활성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인 동시에 여성운동의 불씨들이 백래쉬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재점화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1) P대학은 총장이 미투운동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고,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젠더사회학 교원을 특채하기도 했다.

2) P대에서는 1989년 설립된 총여학생회가 2003년에 해산하고 2005년에 여학생잡지 HerStory가 제8호를 발간한 이후 공개적인 여성주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2. 선행연구 검토

1) 교수 성폭력 만연 요인³⁾

2018년 대학미투로 언론에 보도된 대학이 30곳을 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에는 수많은 성폭력 교수가 존재한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대부분 남성교수에 의해 행해지고 피해자는 여성구성원, 특히 여학생이다(김엘림, 2016: 292). 많은 경우 한 명의 교수는 한 명의 학생에게만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 부산대 L교수 피해자는 밝혀진 것만 22명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H교수의 피해자는 44명이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대부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대학에서 교수성폭력이 이토록 만연하는 이유에 대해 선행연구는 네 가지에 주목했다.

첫째는 대학에서 교수가 가진 권한과 신분보장 특권이다. 교수는 학점 부여 권한뿐 아니라 많은 자원과 업무의 책임자로서 조교 업무 결정(소득획득), 학위논문심사와 취업 등 대학에서의 생활뿐 아니라 대학 이후의 인생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학생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유현미, 2018; 한준단, 2018; 김태현, 2018; 문화과학토론회, 2018; 백영경 외, 2019). 이 때문에 대학원 제자들이 성폭력 가해 교수를 옹호하기도 한다(조주현, 2008; 박경태, 2018). 또 교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와 달리 최종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피해자와 격리되지 않고 수업을 포함한 일상업무를 모두 수행할 뿐 아니라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않는 한 징계기

3) 성폭력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 실정법상의 성폭력범죄를, 성희롱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P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2조 제2항)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 모든 행위가 ‘성적 폭력’이라는 점에 주목해 성폭력으로 쓴다.

간이 종료되면 복귀해 수업을 한다⁴⁾. 이런 비대칭적 권력구조는 교수성 폭력의 피해자가 피해구조를 호소하지 못하고 견디게 만드는 실질적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중년남성중심의 인력구조에 기초한 가부장제 문화다. 2022년 현재 4년제 대학의 교원 중 여성비율은 전임교원 26.2%(국공립 대학 19.1%), 비전임교원 41.0%다. 여학생 비율은 학부생 42.7%, 석사과정생 55.3%, 박사과정생 43.9%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88, 126, 129, 157). 또 2022년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8.8%, 40대는 30.0%, 50대와 60대는 61.2%다(한국연구재단, 2023: 34). 즉 교수의 대다수가 중년의 남성이며, 여성대학원생들은 남성대학원생에 비해 교수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중년남성의 기준과 감각이 대학을 지배할 때 성폭력은 친밀감의 표현이거나 기껏해야 실수라고 명명된다. 이런 대학에서 연구자로서 일자리를 얻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여성대학원생들이 일상적 심기노동뿐 아니라 성폭력과 연구결과물 수탈까지 감내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셋째는 신자유주의의 대학 지배다. 유현미(2022a)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품성 있는 지식을 생산하고 경쟁력 있는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는 능력주의의 압력이 가중되는데 이 압력은 그간 대학을 유지하던 비판적 지식과 주체의 생산지로서의 공동체 규범을 파괴하고 연구실을 ‘쪽방화(cellularization)’했다. 쪽방은 남성 교수의 지위 권력을 중심으로 남학생들 간의 위계적 분업과 통제, 교수직과 쪽방 운영의 남성 승계의 질서, 남성 교수 간 네트워크의 확장과 연결, 여학생들의 성애화되는 감정 노동과 친밀성 수행을 통해 작동한다. 쪽방 구조는

4) 동국대에서 김익기 교수가 해임되자 교권수호를 내건 동국대 교수 201명(서울 캠퍼스 교수의 대다수), 전국 사회학과 교수 194명(전국 사회학과 교수의 대다수, 서명 후 철회 4명), 동국대 사회학과 졸업생 119명의 탄원에 힘입어 교원징계재임위원회에서 복직판정을 받았다(박경태, 2018).

성폭력에 우호적인 상황 구도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력 행동을 무력화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넷째는 가문구조를 기반으로 한 대학-학계의 재생산 구조의 문제다. 권명아(2018)는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주장하는 학문집단에서조차 내부자의 성폭력에 대해 모르는 척하거나 문제가 공론화되어도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이유로 대학-학계의 재생산 구조에 주목했다. 학계는 특정 분야와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면서 서로 받아쓰고 이어쓰는 관계인 가문구조를 형성한다. 가문구조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논리를 넘어서 외부의 논리를 들을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이 마비되기 때문에 같은 가문에 속하는 가해자 주변 인물들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2) 대학 반성폭력 운동 주체의 탄생 경로

2010년대 중반의 페미니즘 활성화를 1990년대 후반 이후의 파퓰러 페미니즘과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든 리부트라고 보든(손희정, 2015, 2016), 디지털 공간과 대중문화가 새로운 페미니스트 탄생의 주요 경로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손희정, 2015; 김보명, 2018; 고은해, 2019; 권은채, 2022; 오혜진, 2022).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거리와 광장에서의 애도와 참여”다(김보명, 2018). 2008년 광우병 집회와 세월호 추모, 국정농단규탄 촛불집회 등 한국사회의 핵심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여성들은 경험은 행동 능력의 증가로 이어졌고, 2016년 5월 17일에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대한 애도의 정동은 여성들의 행위능력을 폭발시켰다. 디지털 공간과 대중문화에서 여성들은 주체이자 참관인으로서의 모호한 거리 두기가 가능했다면 강남역 사건은 대다수 청년 여성들에게 더이상 중립은 없음을 실감하게 했기 때문이다. “살여주세요. 넌 살아男았잖아”라는 포스트잇 문구가 압축적으로 드러내듯이 청년여성들은 강남역 사건이

“성차별적 구조 속에 위치한 ‘여성됨’의 집합적 경험 및 삶의 조건”임을 인식했고(정용림·이나영, 2018),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특별한 자기 동일시가 없었던 ‘평범한’ 여성들이 강남역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추모시위를 개최하고 참가했다.

2010년대 중반 페미니즘의 확산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실천은 “페미니즘 도서 열풍”이다(조혜영, 2017). 2010년대 중반 페미니즘 관련 서적 출판이 급증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획득한 문제의식을 독서로 심화했다(여성신문, 2016; 한국일보, 2021). 김주희(2017)는 여성들이 “독서의 과정, 독서로부터 파생된 질문 등을 SNS와 같은 텍스트 외부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재조직화하고 재유통시킴으로써 이른바 ‘서적-이후적 독서 양식’과 같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서적 외부로 나아가려는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는 현상을 분석한다. 김주희가 주목한 대상이 “이론화, 조직화 이전에 각개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조직화를 가능하도록 한”, “독학자⁶⁾ 페미니스트”인 반면 권은채(2022)는 소규모 페미니즘 책모임을 사례 연구했다. 참여자들은 성차별을 설명하는 언어를 익혀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응할 언어와 논리를 갖추며 페미니즘을 더 깊게 배우기 위해 페미니즘 서적을 읽지만, 혼자서 책을 읽고 지식을 흡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같이 읽고 토론하기 위해 독서모임에 참여한다.

그런데 페미니즘 서적에 대한 깊은 독서, 함께 읽기의 가장 전통적인

-
- 5)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알라딘의 ‘여성학·젠더’ 분야 도서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8% 증가했고 <이갈리아의 딸>은 2015년 11월과 12월에만 4,000부가 판매되었다.
- 6) 일찍이 사회운동의 주체 형성과 독학자문화의 관계에 대한 주목한 사람은 에드워드 팔머 톰슨(2000)이다. 톰슨은 19세기 초 영국노동계급 내에 급진주의 문화가 형성된 중요한 토대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독서열풍에 주목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새로운 사회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망과 함께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도 학습모임을 토대로 태동했다.

형식 중 하나는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과목 수강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축적한 교원의 안내 하에 함께 학습하는 것이 대학 반성폭력 운동 주체의 형성에 직접 기여할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페미니스트 정체화 및 연대하는 시민으로의 성장에서 대학 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백영경 외, 2019). 또 페미니스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때문에 위축되고 삶에 대한 불안과 변화가능성에 대해 우울한 전망을 갖는 여성청년 페미니스트들에게 대학의 여성학 강의는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는 곳 중 하나이고(추지현, 2019; 오혜진, 2022), 바로 이곳에서 페미니스트 소모임이 결성되기도 한다(김혜경, 2022).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여성학 강의 수강 경험이 대학 반성폭력 운동 참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여성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여성학 수강 경험과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치적 실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여성운동 주체의 부상과 관련해 ‘친밀성’과 ‘자매애’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집단과 사회운동에서 신뢰와 연결이 중요한 토대지만, 오랜 세월 공식적 사회집단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들의 경우 공적 공간에서의 집합적 발화 과정에서 비공식적 관계망에서의 친밀성 구축의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다⁷⁾. ‘자매애’를 토대로 한 여성들의 단결이 19세기 중후반 영국여성운동의 태동에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강남식, 1997), 1970년대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의 ‘친밀성의 공동체’라고 할 만한 소모임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1970년대의 한국에서 여성사업장의 민주노조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세력이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노동운동의 투사로 노동조합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계급적 상황을 인지하게 만든 출발점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소모임에서 쌓은

7) 퍼트남(2006)은 동호회 참가 등의 활동이 사회적 연결과 신뢰의 네트워크(사회적 자본)의 발달로 이어지며, 그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정부 성공의 토대임을 밝혔다.

친밀성과 자매애였다(정미숙, 1993; 김원, 2004). 여성들의 연결은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상황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본의 대형마트에서 기혼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수다공동체’는 친밀성을 증진할 뿐 아니라 관리직들의 통제를 견제하는 비공식 권력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이 비공식 권력은 비정규노동자가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김영, 2020). 이상과 같이 여성들의 집합적 발화에서 친밀성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발견은 대학미투운동에서도 친밀성과 자매애의 역할에 관해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 대학 반성폭력운동과 다양성의 정치

성폭력 피해란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미구성 실천이고 이를 해석하는 행위자들의 해석 투쟁임을 생각할 때(유현미, 2018: 99) 다양한 위치의 참여자와 지지자들을 조직해 반성폭력 운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다양성의 정치’는 운동의 내실을 심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제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폭넓은 연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의 페미니즘 재부상 이후 연대범위의 제한 경향, 즉 ‘동일성의 정치’가 지적되고 있다. “나와 ‘같은’ 피해를 경험했으며 따라서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강력한 자매애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동일시와 소구”의 결과 “사회문화적 범주로서의 ‘여성’이 구현되는 다층적인 구조들과 맥락들, 그리고 정체성의 정치학을 넘어서는 저항의 전략과 행위성을 삭제”한 것이다(김보명, 2018: 130). 불편한 용기 집회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참가대상으로 정하고, 페미니즘의 깃발 하에 난민과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모습이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배제의 정치는 운동권 배제에 더해(우지안, 2018) 기존 여성운동과의 거리두기로까지 확장된다(최나현, 2022).

그런데 미투운동 이후 대학 반성폭력 운동에서는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하는 점이 특징으로 보고된다. “기존 학생회 중심의 대응형태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사건 대응 모임이 많이 구성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연대공동체가 등장”하고(김태현, 2018: 115), 졸업생, 교수 등의 참여도 보고된다(유현미, 2018). 전주시 A대학의 페미니스트들은 세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서로 다른 입장의 페미니스트들이 차이를 묵인하고 함께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여성운동세력, 심지어 정부기관도 연대했다(김혜경, 2022). 디지털 공간과 거리라는 익명적 공간에서 전개되는 반성폭력 운동과 대학이라는 구체적이고 비익명적 공간에서 전개되는 반성폭력 운동의 연대 지향성이 이렇게 대조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여교수회나 여성연구소 등의 대학내 여성 및 성평등 기구/기관들, 나아가 페미니스트 교원도 대학 반성폭력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학내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3.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으로 2018년 P대 미투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17명(2018년 당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필자들의 관계망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 P대 미투 전개 과정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중앙동아리, 소모임, 여성학 수업 수강생, 학과 비상대책위원회, 대학원생 연대모임 등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구 참여를 요청했다. 동아리/소모임 대표였던 강정연, 배지은, 이수영⁸⁾과는 2차례 만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1회 면접했다.

8) 성명은 모두 가명으로, 실명과 연결하지 않고 성과 이름 모두를 바꾸었다.

진학, 취업 등으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배지은, 김희연, 배정윤, 강한성, 장지선과는 줌으로 면접했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학내 연구실에서 대면 면접했다. 면접시간은 회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인터뷰 방식은 질문과 네러티브 자극을 조합시킨 인터뷰 방식인 문제 중심 인터뷰(problem-centered interview) 방식을 취했다(우베 플릭, 2009: 166-172). 사전에 전달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페미니즘을 접한 계기, 대학 생활 경험(학과 내 성차별, 여성학 수업 수강 등), P대 미투와 관련된 기억, 미투운동참여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현재의 일상생활에서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실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면접 종료 이후라도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한 연구참여동의서를 전달하고 서명받았다.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면접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분석했다. 수년간 수업 내에서 쌓은 신뢰와 친밀성, 함께 활동했던 경험과 P대 미투운동 기록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매우 활발하게 구술했고 풍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면접 후 sns로 여러 차례 추가 질문을 했다.

심층면접 자료 외에 대자보와 포스터 등과 사진, SNS 게시물 등의 1차 자료도 함께 검토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P대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했을 뿐 아니라 교원과 졸업생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미투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지선언을 했기 때문에 1차 자료가 상당히 풍부하다. 필자들은 미투운동 당시부터 향후의 역사기술을 위해 자료를 수집해두었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연번	성명(가명)	성별	입학년도	소속/활동기반*	인터뷰 당시 직업	인터뷰 일자
1	강정연	여	2014	동아리(대표)	취업	2020.06.07.(1차) 2023.08.14.(2차)
2	배지은	여	2016	동아리(대표)	대학원 재학	2022.08.18.(1차) 2022.08.19.(2차)
3	반경림	여	2017	동아리(대표)	취업 준비	2022.08.11.
4	차유빈	여	2015	소모임(대표)	취업	2020.04.19.
5	이수영	여	2016	소모임(대표)	대학원 재학	2020.04.20.(1차) 2022.08.04.(2차)
6	하소정	여	2016	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취업	2022.09.30.
7	배정운	여	2009	대학원생 연대체	취업	2022.08.21.
8	이수경	여	2012	동아리, 소모임	취업 준비	2022.08.09.
9	강수현	여	2014	동아리, 소모임	취업 준비	2022.08.29.
10	김희연	여	2015	동아리	취업	2022.08.29.
11	장지선	여	2014	소모임	취업	2022.08.24.
12	임윤정	여	2015	소모임	취업	2022.08.27.
13	양시영	여	2015	소모임	취업	2022.08.12.
14	손경운	남	2011	없음	취업	2022.08.22.
15	강한성	남	2013	없음	취업	2022.08.21.
16	김예진	여	2013	없음	취업	2022.08.26.
17	정혜준	여	2015	없음	대학원 재학	2022.08.22.

* 동아리: 전교생 참여, 소모임: 특정 학과를 중심으로 타과생 참여

4. ‘P대페미’의 탄생과 ‘페미니스트 스펙타클’

이 장에서는 2018년 P대학 미투운동의 결집을 대학 내부의 운동 주체 형성과 환경적 조건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교내에 총여학생회로 상징

되는 조직적 여학생운동의 명맥이 단절된 상황에서 다양한 운동 및 학술 장은 교내 반성폭력 활동 주체 육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토대였다. 특히 미투운동 국면에서 자신들을 '대페미'라 명명한 세 운동 주체는 학생운동과 '진보적' 세력 및 여성학 수업(학부, 대학원)에서 맺어진 관계 속에서 탄생했다. 더불어 P대학 미투운동에는 페미니스트의 결집과 미투운동 지지를 가시화하는 '페미니스트 스펙타클'이 하나의 전술로 작동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⁹⁾. 미투운동 지지 선전물이 캠퍼스를 가득 메우거나 여성학 행사에 참가자가 운집하는 광경 등이 대표적 예시다. 페미니스트 실천이 캠퍼스를 압도하는 장면은 페미니스트 학생들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활동을 한층 고양 시켰을 뿐 아니라, 교내외 구성원들에게 목소리를 보태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미투운동의 확장에 기여했다.

1) '편페미'의 등장, 저항 행동의 마중물

리부트 세대 페미니스트의 결집과 가시화에는 운동권에서의 학습과 훈련이 중요하게 활용되어왔다. <불꽃페미액션>과 <페미당> 이가현의 알바노조 및 노동당 활동 이력과 <페미당당> 우지안(2018)의 경험은 리부트 세대 내부 "편페미"의 역할을 보여준다(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22.). 그러나 리부트 세대 페미니스트의 활동에서 운동권 페미니스트의 기여는 진지하게 조명되지 못했다. 때로 운동권이라는 출신지는 여성에게서 떼어내야 하는 정체성으로 폄하되기도 했다. 해화역 시위의 "편배제" 구호가 시사하듯, 전통적인 학생운동조직이 특유의 남성중심성을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해석되면서 여성운동의 성공을 위해 선을 그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반성폭력 운동에서 "편

9) 페미니스트 스펙터클이라는 말은 강남역의 포스트잇 추모행동이 불러일으킨 정동이 시사하듯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군중(행동)의 운집 그 자체가 참여자들에게 부여했던 강렬한 연대감과 고양감을 떠올리며 만들었다.

페미”의 투쟁을 간단히 삭제하기는 어렵다. “편페미”는 운동권의 이중구조와 여성차별을 폭로한 당사자들이었고, 운동권 내 성폭력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을 일으키며 성폭력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했다(박정미, 2002; 엄혜진, 2009).

P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일찍이 진보정당 학생조직에서 활동가로 훈련 받은 여학생들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정연, 지은, 희연은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예의주시하며 전문적인 활동가로 훈련 시킨 조직원이었다. 이들은 페미니즘 리부트의 열기와 함께 ‘여성’ 정체성에 눈을 뜨면서 따로 또 같이 페미니즘을 학습했고, 이를 통해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선배들은 “여성운동은 부문운동에 불과하다”고 힐난했지만, 이들에게 여성운동은 “내 운동”이라는 확신으로 다가왔다.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은 “운동권 선배들의 요청으로 하게 되는 하기 싫은 일들”과 달랐기 때문이다¹⁰⁾. 정연과 희연은 교내에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2016.5.23.) “같이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명〉을 만들었다¹¹⁾. 지은은 페미니스트인 친구가 운동권 선배에게 “되게 미움” 받는 것을 목격하며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만나려 〈싫다잖아〉를 시작했다. 2017년 3월, 페미니즘 리부트 후 처음으로 페미니즘 동아리 홍보물이 캠퍼스에 게시됐다.

희연이가 P대학역 앞에 강남역 집회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많이 가봤으니까 집회 분위기를 대충 알았는데, 너~무 막말을 하고, 마이크를 뺏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못 듣게 하고, 몸부림 일어나고... 되게 충격인 거예요. **‘집회인데 왜 저러지?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여자라서 그렇구나’ 그런 생**

10) 2000년대 초 P대에서는 “편페미”들이 ... 조직 내 여성운동의 한계를 직시”하며, 성정치운동 세력과 학생운동 출신이 연합하여 함께 활동한 바 있다(지영경, 2018: 72).

11) 희연은 정연에게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함께 〈여명〉을 만든 초기 멤버이지만, 운동권 활동으로 누적된 피로감과 활동의 부담으로 인해 〈여명〉 결성 반년 후 동아리를 떠났다.

각이 딱 들고, 그럼에도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는 여성분들이 계셨는데, 하나같이 자기가 겪었던 삶, 자기가 봐왔던 사회, 자기가 겪었던 폭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 P대학역 앞에서 집회, 추모집회를 하고 나서 학내에서도 이런 자리를 열어보자고 얘기가 나왔어요(정연).

[싫다잖아를 만든 이유는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도 있었고, 학생운동 선배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독자적인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더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 선배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후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위적이었거든요. 아예 활동에서 배제하기도 하고, 제 친구 중에는 사실 나이주의라든지 권위적인 문화에 굉장히 반대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페미니즘을 먼저 공부하기도 하고, 좀 께어 있어서 선배들에게 되게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지은).

그 해 <여명>과 <싫다잖아>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대학 반성폭력 문제 대응이었고¹²⁾, 이 활동은 학내 다양한 여성들의 위치와 상황을 일깨우는 출발점이었다. <여명>은 동아리 결성 첫 달에 대학병원 교수의 성범죄와 예술대학 교수의 성차별적 발언을 규탄하는 대자보(또 다시 부끄러운 P대)를 게시했다(2017.3.). <싫다잖아>는 B시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토론자로 나서며 대학에서 경험하는 여학생의 어려움에 관해 적극 발언했으며, 하반기에는 교내에서 독립적인 집담회를 조직하기에 이른다. 두 사람의 활동 방식과 속도는 이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동아리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동아리원들은 “정연 님이 대자보 쓰시면 나는 붙이러” 다니는 식으로 활동의 문법을 익혀나갔다. 외연화된 활동은 정연과 지은이 일찍부터 여성단체가 조직한 <B시미투운동본부>의 일원으로 합류하고, P대학 최초 미투 고발 시점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활동하는 것으로 연결됐다(2018.3.8.)¹³⁾. 두 사람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12) 두 동아리는 결성 직후 한 해 동안 교내에서 정규적인 독서·영화모임,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 등도 활발히 개최했으며, 가을에는 학내에서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활동도 했다. 2018년에는 <여명> 회원수가 80명이 넘을 정도로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은 많은 학생의 지지를 받았다.

를 하며 P대학 재학생 중 처음으로 미투운동을 시작한다.

정연과 지은이 교외에서 동아리 대표로서 맺은 관계도 P대학 미투 운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동아리 결성 직후 B시 다른 대학 페미니즘 동아리와 만나게 된다. 처음 이 모임은 동아리 운영진이 서로 고민을 나누는 사적인 관계였으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성추행 대응을 계기로(2017.5.)¹⁴⁾, 불법촬영근절집회(2017.11.10.)와 검은시위(2018.3.9.)를 함께 조직하는 연합체로 발전됐다¹⁵⁾. P대학 총장면담(2018.4.24.)에도 함께 배석한 동아리 대표들의 존재는 B시의 모든 여학생이 P대학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압력이 됐다. 동시에 정연과 지은은 기존에 소속됐던 운동조직과도 관계를 유지했다. 정연은 미투 운동 과정에서 가해 교수 징계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총장실을 점거하겠다고 계획했었는데, 이는 자신이 출신 조직의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총장실 점거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으나, 운동조직과의 관계는 2018년 하반기 B시끝장집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3) P대 미투운동의 물꼬를 튼 것은 여성단체연합, 성폭력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미투운동B지역대책위의 토론회에서 한 참가자가 31년 전 P대 사회학과 교수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증언한 것이었다(연합뉴스, 2018. 3. 8.). 이후 대책위는 각 대학 페미니스트까지 포함한 <미투운동B시본부>를 구성해 활동했고, 총장면담요청 등 P대 미투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또 이 네트워크는 2018년 5월부터 연말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된 <B지역 성차별·성폭력끝장집회>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끝장집회는 대학 페미니스트들이 스쿨미투를 실천하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과 조우한 장이기도 했으며 캠페인은 스쿨미투를 적극 지원했다. 이와 같은 활동은 P대 미투운동 참여자와 지역 내 다양한 여성운동 세력의 밀접한 결합을 보여준다.

14) 이들은 성추행 피해 신고에 대해 2차 가해 발언을 한 경찰서장의 징계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통해 그를 좌천시켰다.

15) 이들은 2018년 10월에 B시퀴어문화축제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이후부터 <캠퍼스 페미니네트워크>라는 공식명칭을 썼다. 이전까지는 특별히 모임에 대해 명명하지 않고 동아리 대표와 주요 멤버가 공동으로 행동했다. 2017~2018년 사이 대학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함께 한 행사 포스터를 통해 K대 <파워페미레인지>, D대 <더치페미>, PK대 <부페세력>, PE대 <페듀비결>, KM대학교 <마린페미>가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형적인 운동권”은 아니더라도, 진보적 사회단체 활동 경험이 학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혜준과 정윤이 대표 사례다. 혜준은 미투 고발 초기 학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 대자보 작성을 논의했고, 미투 운동 지지 의사 표명을 위한 포스트잇 작업을 여러 차례 했다. 정윤은 일면식 없던 피해자와 만난 직후(2018.4.16.) 대학원생 연대체 〈한준단〉으로 활동했다. 이들에게는 사회단체 활동 경험이 문제 제기 능력과 실천력, 연결과 연대에 대한 감각으로 축적되어 있었다.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과정도 활동 경험과 포개어져 있다. 미투 운동의 기억을 더듬는 인터뷰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세월호나 촛불집회 참여, 제주 강정 방문을 언급하는 것, 야학 활동의 경험이나 채식을 결심한 계기가 묻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양한 정체성이 겹쳐 있는 활동에 여성에 대한 고민 역시 쌓아 올려졌다. 2017년 가을, 혜준이 교양 강좌 〈성의 과학〉 담당교수에게 수업자료로 불법촬영물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구한 일은 과히 미투 운동의 전초전이라 할 만했다¹⁶⁾. 학교는 이미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 들썩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편배제”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하나의 중요한 구호였다(손희정, 2020: 51). 전통적인 운동권의 남성중심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페미니즘 리부트와 더불어 가장 기민하게 움직였던 이들에는 운동권 출신 페미니스트가 있었고, ‘P대페미’들은 “편페미”가 만든 틀에서 저항의 문법을 익혀나갔다. 또 진보적인 사회단체에서의 학습과 경험이 적극적인 미투 운동 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운동권과 여성 사이를 경계 짓지 않는 시

16) 교수는 문제제기한 학생들을 공개 비난하고 수업을 폐강시키겠다고 발언했다. 그로 인해 곤욕을 치르던 혜준을 〈여명〉과 〈싫다잖아〉가 돕고, 해당 교수를 성평등상담센터(현. 인권센터)에 학습권 및 인권침해로 신고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교수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대자보(성의 과학 폐강 팩트 체크)를 부착한 〈여명〉과 혜준의 이름을 적시하며, 왜곡된 사실을 공표했으니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토론을 하자는 대자보를 붙이기까지 했다. 이 사건은 대학 내 교수와 학생 간 권력 비대칭의 문제, 성평등상담센터의 사건 처리 방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각, 리부트 세대 페미니스트 내부 “편”들의 역할을 드러낼 때 리부트 세대 페미니스트와 미투 운동의 역학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사회운동의 경험이 거의 없는 ‘평범한’ 여학생들이 미투운동에 합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심에는 여성학 수업이 있었다.

2) ‘결페미’의 탄생¹⁷⁾: 함께 커지는 힘

P대학 미투 운동의 주요 참여자들은 2018년 3월에 여성학 수업을 듣고 있었거나 이전에 들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별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활동에 나서게 된다. 대학 여성학 강의에서 이뤄지는 특수한 유대 관계 형성에서 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페미니즘 지식 갱신은 읽기와 말하기, 그리고 듣기라는 행위의 순환 속에서 이루어지며(김주희, 2017), “집합적 읽기 실천”은 서로의 경험을 듣고 답하는 상호 의존성을 통해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강한 지지와 신뢰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추지현, 2019). 학습 공간에서 형성된 연대감이 차별적 현실에 맞서는 저항 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여성학의 실천적 면모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 중에서는 대학의 인간관계 자체를 여성학 수업 중심으로 설명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들이 힘주어 말한 “관계”는 P대학 미투 운동 국면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변모했다.

학생들은 “원탁의 관계”를 통해 끈끈한 학습 공동체를 만들었다¹⁸⁾. 연구참여자 대다수가 수강한 일부 수업은 교수자와 수강생이 모두 동그랗

17) ‘결’이라는 표현은 엄기호의 저작에서 차용했다. 엄기호는 사람들에게 “결”이 만들어질 때 사회적 행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동글게 모여 앉아”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는 관계 안에서 “사적인 경험을 공적인 이슈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고 보았고, 그렇게 “자기를 넘어서는” “결”을 만들며 성장해야만 공동의 행위를 꾀할 수 있다고 했다(엄기호, 2014: 8-25).

18) 이 수업 방식은 본래 참여자들의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수업에 대해 “누구 방관자가 되지 않는” 책임감을 요구하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수업이 진행될수록 이 ‘책임’은 수업 참여의 의미를 넘어서게 된다.

게 모여 앉아 토론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눈을 마주치며 격렬하게 감정을 나누는 일은 결코 '가벼울 수 없었다'. 사회적으로 많은 여성이 자기의 경험을 큰소리로 외치던 바로 그 시기에 여성학 강좌도 가장 역동적으로 진행됐으며, 수강생들의 이야기는 고발과 고백을 오갔다. 그에서 비롯된 감정의 파고도 높았다. 표면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 “침묵”의 순간조차도 슬픔이나 분노 같은 다양한 감정들로 채워졌다(오혜민, 2022). 연구참여자들이 수업을 심리상담이나 자조 모임에 비유하는 이유다.

유사한 일은 교내 학술행사에서도 있었다¹⁹⁾. 매회 250명 전후의 인원이 참가한 <성평등네트워크심포지움>의 규모는 그 자체가 하나의 경관, 즉 ‘페미니스트 스펙터클’이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발표자들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하거나 울었고, 자기 혼자만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안심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적 경험은 ‘P대페미’의 세력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특히 수영은 단지 친구의 권유로 이 행사에 참석했었다가, 당시 여성학 수업 수강생인 경윤과 수경의 발표에 감명을 받아 그다음 해 여성학 강의를 신청하게 된다. 이처럼 수업과 학술행사를 오가는 경험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공통성을 이해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는 현실의 문제 해결에는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 책임으로 확장됐다.

2018년 3월, 여성학 수업은 P대 미투 고발에 관한 내밀한 정보가 집중

19) 여성연구소, 여교수회 등 학내 여성기구가 중심이 되어 2016년 가을에 만들어진 <P대학교성평등네트워크>가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성평등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초기 심포지움의 주제는 여성혐오(2016), 청년여성(2017), 대학여성운동역사(2018)이었으며, 전문연구자들과 더불어 학부생 발표자가 등단하여 공감의 폭을 극대화했다. 2016년 말 250여 명이 참석한 첫 행사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처음으로 학내에 페미니스트들의 존재가 집단적으로 가시화되는 계기였다.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나만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며 안도하거나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발전시켰다(여성연구소, 2018). 성평등네트워크 측은 참가자 규모가 자체가 갖는 힘(페미니스트 스펙터클)을 중요시하며 참여자 온집에 전력을 쏟았다.

적으로 오가는 곳이었고, 이는 강남역 사건부터 들끓고 있던 감정들이 구체적인 대상으로 모이는 계기였다. 한성은 3월 초 여자친구와 미투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피해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감정적으로 더 확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 남학생들도 페미니즘 동아리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자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정이 말하듯, 이 시기에는 대부분이 성폭력 고발에 격노하면서도 자기의 감정을 정치적 행위로 연결하는 방법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수업과 수업단톡방에서 공유된 구체적 정보들은 가해자의 얼굴을 생생하게 만들었고, 분노의 방향과 해야 할 역할도 분명하게 했다. 학생들은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집단행동을 실행했다.

“[서지현 검사, 김지은 씨 고발 이후 3월이 됐는데 학교에서도 [미투 고발이] 터져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되게 약간 너무 그때 되게 분노해 있었던 기억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학교 안에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미투가 엄청 생겨날 때였으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그런데 제가 막상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수업명 들어가서야] [알았죠](윤정).”

수강생들은 온라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친 언어로 ‘방 꾸미기²⁰⁾’를 하면서 가해 교수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2018.3.27.). 그중에는 학생 본인의 피해 경험과 직결되는 표현도 있었다. 두 번째 ‘방 꾸미기’에서 사용된 언어는 더욱 과격했다(2018.5.30.). 사실 리부트 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 남성에 대한 노골적 표현은 매우 익숙한 일이지만, 가상공간이기에 허용되었던 표현이 사회적 권위가 부여된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도약이었다. 그 교수가 성폭력 가해자라 해도, ‘학생이 교수에게 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말들이었다. 복도에는 교수 연구실이 줄지어

20) 가해 교수의 연구실 출입문과 벽에 가해 행위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붙이는 저항 행동이다.

있었다. 학생들은 아는 교수를 마주치는 위험도 감수했다. 지선이 말하듯, 이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던 것은 다 같이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었다. 같이 한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용기를 불어일으켰고, 학생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현실의 권력 관계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런데 ‘방 꾸미기’ 참여는 집단적 발화에 대한 전적인 동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영에게 ‘방 꾸미기’의 경험을 묻자, 당시 느꼈던 “혼란”을 언급했다. 촛불집회 당시 “친구”와 “놀이”하듯 나갔다는 기억을 꺼내며, 참여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동기나 혼란이라는 그녀의 표현은 당시의 고무된 분위기와 한 발 떨어져 있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시영의 이 “혼란”은 어떤 사안이나 저항 행위에 대한 이해와 결단이 불완전하더라도 함께 목소리를 내러 갈 만큼 강한 감정적 동요가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유현미, 2022a).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는 ‘방 꾸미기’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과정은 명료히 설명되지 않거나, 거의 삭제되어 있었다. 이는 어쩌면 참여자들의 행위 동기에서 “언어는 부차적인 위치밖에 차지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일 테다(최정은, 2013: 121).

상당한 고양감 속에서 진행된 ‘방 꾸미기’는 그 자체가 정치 교육의장이었고, 수강생들은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식세계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시영에게 그 일은 “사랑하는 남子들과 싸우는 계기”가 됐다. 윤정은 2018년 상반기 ‘방 꾸미기’를 비롯한 여러 집회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좀 탄탄하게 먹고”, “참여하는 걸 주저하지는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 지선은 이 시기를 “순응적인 인간에서 저항적인 인간으로” 변하며 개인적으로 오래 겪었던 우울감을 해소한 때로 기억한다. 집합적인 연결의 경험이 각자의 삶의 맥락과 함께 새롭게 몸에 새겨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행동에 동참했던 친구들을 다시 한번 페미니스트로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이로 인식하게 만든다. 계속해서 이어진 친구 관계는 2019년 초 두 개의 페미니스트 모임으로 가시화되었다.

정신적으로 엄청 우울하고 피폐한 상황이었는데, [수업명] 사람들끼리 만나서 으쌰으쌰 하는 게 저한테는 삶의 원동력이 됐어요. 같이 뿔 한다는 것 자체가. (...) 네, 그냥 **우울감이 싹 날아갔습니다. 너무 즐거운 기억이 그걸로 남아서, 지금도 종종 그때 생각을 해요. 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어떤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제가 할 수 없었던. **순응적인 인간에서 저항적인 인간으로 탈바꿈**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모두랑 같이,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였으니까(지선).**

여성학 수업은 하나의 실천 장소가 될 수 있다. “원탁의 관계”는 수강생들 사이에 특별한 결속을 만들었고, 이들은 피해자의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여기며 미투 운동에 참여했다. 학습과 실천을 순환하는 경험 속에서 이들은 여성학 수업을 “폐미사관학교”라 부르기도 했다. 이론과 실천을 넘나들면서 “싸우는 여자”로 성장했다는 은유였다²¹⁾.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대학에 조직적 학생운동이 사라진 상황에서 여성학 수업이 성찰적 시민을 키우는 훈련장이자 전장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교수 성폭력’은 교수와 학생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가 젠더화된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며, 교수의 권력은 대학원생과의 관계에서 극단으로 나타난다. 다음에는 위계적 권력 관계의 당사자인 여성 대학원생이 미투운동에 참여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대학원생 연대모임 ‘한줌단’

대학원생 연대모임 〈한줌단〉은 K교수 피해자가 속한 연대체로, 공식적인 첫 대응부터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키워드를 전면 강조했다 (2018.4.17.)²²⁾. 〈한줌단〉에게는 피해자와의 만남 이전부터 ‘교수 성폭력’

21) 학생들은 해당 수업에서 매주 2~3편의 학술지 논문에 대한 요약문과 토론문을 작성하고 논평을 받았다. 학생들은 학업량의 무게감을 “9학점짜리 수업”이라는 말로 칭하기도 했다.

22) 〈한줌단〉은 피해자가 최초 조력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가 본인과 관계가 형성

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투 운동 직전 몇 년 간 대학원 여성학 수업과 페미니즘 스튜디오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었고, 이들에게는 ‘여성 대학원생’이라는 특수한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주요한 논의였다. 여기에는 교수에게 착취당할 가능성이 큰 ‘을’의 입장과 더불어, 대학원의 위계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동시에 그곳에 의존하며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는 모순에 대한 성찰이 공존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피해자의 경험은 각자 체험해왔던 교수 권력이 성폭력으로 드러났음을 확인하는 계기이자, 성폭력 가해 교수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에 자신이 가담한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과정이었다(한준단, 2018: 124). 이들이 피해 사실에 느낀 분노에는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일은 제한적이거나 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활동이었다.

〈한준단〉은 ‘페미니스트-여성 대학원생’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속했고, 학내외를 아우르는 여론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²³⁾. 이 무렵 L교수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²⁴⁾, 그 소식에 K교수 피해자가 느끼던 압박감과 불안도 한준단의 활동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한준단, 2018: 119). 이는 가해자 L교수 소속학과 비대위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한 학과비대위는 위치에 따른 입장 차가 있었고, 성폭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부터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그로 인해 대응 활동의

되어 있던 대학원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 최초 조력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

23) 〈한준단〉은 결성 다음 날 페이스북 PNU_METOO 페이지를 만들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게시했고, 피해자는 방송사(JTBC)와 인터뷰를 했다(2018.4.18.). 활동 한 달 경과 후(2018.5.13.) 해당 페이지를 통해 시작한 ‘파면동의서’ 서명운동에 1,692명이 참여했다.

24) 교원의 징계 수위는 정직3개월 다음이 해임이다. 이 격차가 너무 커서 대부분의 중징계가 정직3개월로 결정되므로 그 사이에 몇 단계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유현미, 2022).

방향, 문건 작성의 수위를 조율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써야만 했다. 이들에게는 다른 연대체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논쟁거리였고, 교수진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까닭에 미투 국면에서 학과비대위의 외화된 활동은 실질적으로 활발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반면 〈한줌단〉은 신속히 의사결정을 진행하면서 짧은 기간 사이 여러 외부의 요청이나 문제 사안 등에 대응해나갔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저는 성희롱은, 성추행은 안 당했지만 그 사람이 대학원 내에서 겪었던 여러 교수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제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남성 지도 교수 권력, 아카데미 안에서 남성 교수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력과 지방대 출신의 여성 학생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취업을 해보려고 하는 또 공부에 열망이 있는 여성 대학원생이 가지는 관계...**(정윤).

당연히 의견조율이 잘 안 됐고, 매일 밤 그런 회의를 한 거죠.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대자보를 쓸 거면 어떤 워딩까지 써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매일 새벽같이 모여서 **이 워딩은 이게 문제일 수 있고, 왜 이런 워딩을 써야 하며 이런 얘기만 이제 계속 지난하게 하는 과정이었고, (...) 정치색을 띠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비대위에 되게 많았어요. 어디 나가서 사회적인 발언을 하고 혹은 성폭력상담소랑 같이 활동을 한다면** 그 교수를 학교에서 몰아내는 것 이상의 정치적인 행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되게 많이 했었고(소정).

〈한줌단〉의 주된 교내 활동은 대자보 게시였다. 〈한줌단〉 활동 개시 직후 약 열흘은 매일 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손글씨의 대자보가 학교 곳곳에 걸렸다. 캠퍼스를 수놓는 대자보 행렬은 교내 미투운동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을 모두 자극하며 교내 대자보전(戰)으로 격화되기에 이른다. 예컨대 학과비대위 중 “급진적” 입장이었던 일부 학생들은 내부에서 느낀 답답함을 가해 교수 규탄 현수막 게시로 드러냈고, 국문과, 철학과, 비정규교수노조의 성명서도 뒤이어 게시됐다. 적은 숫자지만 개인

명의의 대자보도 등장했다. 한편, 반대 세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자보가 불법적으로 게시되었다는 ‘대자보 허가론’을 주장하며 대자보를 훼손했다. 대자보 위에 지지 세력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낙서하고, 대자보가 쓰레기통에 처박힌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식이었다. 페미니스트 학생들은 온라인 백래쉬에 대한 분노를 더 많은 대자보 작성으로 풀었다. 학생들의 열렬한 참여로 게시판이 대자보로 뒤덮이자, K교수 소속 단과대학에서는 지나친 게시는 삼가라는 공지를 붙일 정도였다. 〈한줌단〉은 ‘대자보 허가론’을 빌미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커뮤니티를 향해 반박문을 게시했다. 이렇게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계속해서 서로를 자극하는 일은 여론의 관심을 지속시켰다.

〈한줌단〉이란 새로운 그룹의 합류는 학부생들에게도 힘이 되었다. 공적인 장소에 가해 교수를 규탄하는 말을 게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제재당할 수도 있었다. 활동 경험이 많은 일부 학생을 제외하면 대다수 학생은 자기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 수 없어 걱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학생들이 활동내용을 검열하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페미니즘 동아리를 저격하는 게시물이 꾸준히 작성됐고, 미투 운동 지지 여론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방 꾸미기’ 이후 가해 교수 소속학과 학생이 동아리명을 명시하며 경고문을 부착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줌단〉은 ‘언니 지원군’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한줌단〉의 당사자성과 예리한 문제의식은 순식간에 활동을 밀어붙이는 힘이 되었으나, 운동의 시야를 좁히는 문제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 대학원생’이라는 동질성을 피해자와의 동일시로 연결하면서 자신들을 고립된 존재로 위치시키곤 했다. 그러나 P대 미투 운동은 다양한 단위의 협력으로 시작됐고, 〈한줌단〉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곳과 연결되어 있었다. 전국을 휩쓰는 미투운동의 노도 하에서 가해 교수를 감싸는 적극적 움직임도 생겨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외부와 연

결되는 동안 단체의 성격이 다르기에 발생하는 견해차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피해자에 대한 공감 결여나 가해자 감싸기 등으로 과도히 해석했다. 연대 과정이 오히려 외부와 선을 긋고 자신들의 “소수자성”을 확인받고 강화하는 시간일 때도 있었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주변을 재촉했고, 이것은 인권센터와의 갈등 격화로 번졌다. 사실상 가장 협력해야 할 교내 기관을 잃는 패착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감정적 부침은 〈한줌단〉의 “영혼을 소진시켰다”(한줌단, 2018: 131).

2018년 6월과 7월 두 명의 가해 교수가 차례로 해임되었다. 징계가 결정된 속도와 수준 모두 이례적이었다. P대 미투 운동은 대학의 다양한 페미니스트 그룹이 상황에 따라 응집력 있게 기능하는 것이 대학본부에 강력한 저항 압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줌단은 대자보전(戰)이라는 불쏘시개를 통해 P대 미투운동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지지 여론을 지속시켰다. 삼시간에 불붙은 운동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 징계결과 발표 후 교내 미투 운동은 사실상 종료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운동의 열기가 여전했다. 활동을 하며 이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미투운동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생각보다 힘이 있는 존재이자 저항할 용기를 낼 수 있는 능동적 행위자임을 깨달으면서(유현미, 2018: 233), ‘미투 그 후’ P대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활동을 전개했다.

5. ‘미투 그 후’ 활동의 형성과 전개

이 장에서는 미투운동이라는 강력한 연결의 경험이 참여자들에게 미친 영향력과 그에 따른 일상의 실천을 검토한다. 미투 이후, 그 이전까지는 페미니즘 동아리나 여성학 수업의 참여자였던 ‘평범한’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면서 여러 활동을 기획 및 주도하게 된다. 2019년 초 나란히 결성된 두 개의 소모임은 학과의 남성중심적 네트워크와 각을 세

우며 여학생들만의 “친밀성의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비록 소모임 자체는 짧은 수명을 다하고 사라졌지만, 이들은 졸업 이후에도 일종의 정치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동시에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인으로 존재하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성평등 가치를 중심에 두는 여성 그룹에서 집단적 활동을 도모하거나, 자신을 페미니즘(교육)을 실천하는 주체로 설정하며 자기 주변의 규범을 바꿔나가는 식이다. 이와 같은 ‘미투 그 후’ 일어난 구체적인 실천들을 조명함으로써 미투운동 참여 경험이 페미니스트 및 페미니즘 운동 재생산이라는 후속효과를 창출하였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친밀성의 공동체’와 정치적 목소리

〈여명〉과 〈싫다잖아〉가 활동가의 소진과 모임 해산으로 변동을 겪는 가운데, 2019년초 특정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보스〉와 〈해쳐〉가 등장한다²⁵⁾. 이 새로운 모임의 출발은 사실 수업 바깥에도 페미니즘이라는 관심사를 매개로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누군가는 소모임에 대해 여성들이 속 편하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곳이라는 의미로 “빨래터”에 비유하기도 했다²⁶⁾. 하지만 대학의 남성중심문화에서

25) 공식명칭은 〈P대학교 여성주의 대모임 해쳐〉와 〈P대학교 사회학과 여성주의 소모임 보스〉다. 해쳐라는 명칭은 ‘여성주의의 부화기(hatcher)가 되겠다’, ‘남성중심주의 사회를 해쳐나가겠다’, ‘우리가 다 해쳐먹겠다(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의미다. 보스BOS는 ‘성차별을 베는 칼날(Blade On Sexism)’, ‘우리천장을 뚫고 우리가 보스가 되겠다’는 의미다. 해쳐는 신입회원 모집 공고에 “언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언니들이 여기 있다”는 문장을 사용하며, 모임의 주된 키워드를 ‘언니’로 설정했다.

26) ‘여성주의 실천’을 전면에 내건 〈여명〉 및 〈싫다잖아〉와 달리 두 동아리는 여학생들의 ‘친목’과 ‘네트워킹’을 강조했다. 또한 〈여명〉은 일찍이 교차성 페미니즘을 주창했지만, 이들은 교차성이나 트랜스젠더 배제냐를 놓고 뚜렷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혐오발언금지과 같은 내규도 없었다. 이러한 모임의 성격은 구성원들에게 ‘자유로움’을 줬다. 트랜스젠더에 대해 가지는 서로 다른 입장은 친목모임이라는 목적성 속에서 쉽게 희석되었다.

여학생 모임은 단순한 “놀이터”로 보이기 어려웠고, 〈보스〉와 〈해쳐〉도 자신들의 선언적 성격을 분명하게 인지했다. 두 동아리는 “남학생들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조금 폭력적이었던 분위기”에서 여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외면당했던 역사에 주목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학과에 애착을 가지며 남학생들과도 잘 어울렸던 여학생일수록 남학생들의 끈끈한 관계와 여성 배제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페미니즘 소모임이라는 틀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남학생들의 “형·동생” 관계보다 더 강한 “언니·동생”이라는 지지집단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소모임 활동은 여성학 수업이나 미투운동과는 다른 “친밀한” 분위기를 통해 여학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해쳐〉와 〈보스〉에게 페미니즘 소모임은 여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해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창구였다. 대표의 주된 역할은 언제든지 만날 구실을 만들어 “같이 놀고 술을 마셔 주는 것”이었는데, 예컨대 “이별”이란 남성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했기에 모두가 모여서 성대한 축하파티를 열어야 하는 즐거운 일이었다. 또 여성들만의 장소는 남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여러 정신적·신체적 불편함이 소거된 곳이었다. 남성의 시선을 의식해 대화 주제와 표현을 검열할 필요도 없고, 어떤 화제든 바로 꺼내고 공감받으며 커다란 해방감을 느꼈다. 때문에 〈해쳐〉의 신입회원에는 “저기서 놀면 재밌다고 소문”이 나서 “친구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로 공대와 같은 ‘남초학과’에서 걸 돌던 여학생들은 소모임에 깊은 소속감을 가졌다.

동시에 “언니”들은 자신이 “여동생”에게 시험 족보나 취업 정보를 개인적으로 전해주는 존재가 됐다는 것에서도 커다란 효능감을 얻었다. 이들은 일찍이 남학생 네트워크에서만 족보나 일자리 정보가 유통되고, 자신들에게 정보 획득의 기회가 절대로 오지 않는 것에 분개하고 있었다. 여동생들이 족보를 얻고자 남학생들의 기분을 맞추며 어울렸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지금껏 여학생들이 학과의

각종 유용한 정보 유통망에서 파들려졌던 것에 보복하듯, 동아리 내부에서 족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유사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을 서로 소개하며 도움을 주고받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정보 교환은 이후에 두 동아리가 학습/취업 정보 공유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발전됐다.

이왕이면 다- 끌어주고 싶고, 족보도 나눠주고 싶고, 이때까지 내가 학과에서 가졌던 불만이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고 싶은, 그리고 [〈해쳐〉에서]는 그제 너무 가능했던 것 같아요. (...) 저는 족보 없이 공부했으니까 제 족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애들한테 다 뿌려주고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뿌듯함이 있었죠.** (...)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 동기가 뭐였을까? 왜 그랬을까? 그제 [여자친구들과 놀고 서로를 돕는 것이] 되게 **진심으로 즐거웠던 순간이 많았어요. 자유롭게 즐거웠던 순간이 많아서, 그걸 애네가 대학교 때 꼭 맛을 보고 졸업을 해야될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고**(수현).

그런데 자기들만의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친목”에는 여러 페미니즘 도서를 읽고 왓지떨하게 이야기 나누는 일이 뒤섞여 있었다. 유빈에 따르면 당시는 “여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었고, 소모임에서 페미니즘 도서를 읽는 일은 이들에게 친숙했다. 마침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독서모임을 지원하고 있었기에 활동비를 얻기도 쉬웠다. 이들은 연애에 관한 에세이부터 여성노동 관련 사회과학 서적까지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집단적인 학습을 이어나갔다. 참가자들은 매주 발제문을 쓰거나 질문거리를 가져오면서 “폐 세미나 수업 같은”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었다. 여성학 수업을 여러 차례 들은 학생들은 페미니즘을 새롭게 접하는 학생들에게 선생 역할을 자처했다. 그렇게 참가자들은 책 내용에 자기 일상의 고민을 겹쳐 말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시야를 확장해나갔다.

소모임 활동은 다양한 여성 문제를 새롭게 접하고, 거기서 비롯된 문제

의식을 발언하는 외부 활동으로도 연결됐다. 예컨대 〈해쳐〉가 성매매 여성 지원 기관의 현장학습에서 받은 “충격”은 유빈이 교내 인권센터 세미나에서 반성매매를 주장하는 발표를 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보스〉는 성매매 관련 도서 저자인 학과 선배를 초청해 북토크를 열었다. 또 〈보스〉, 〈해쳐〉는 물론 정연과 지은도 함께 준비했던 위안부 망언규탄 집회에서²⁷⁾, 윤정은 예비 교사인 본인의 교육관을 토대로 교육자가 역사적 사실을 오독하고 부정하는 것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이를 위해 윤정은 문제 영상을 전체 검토하고 내용을 정리했다. 반복되는 외부와의 접촉은 성매매 여성, 일본군 위안부처럼 여학생의 일상과는 먼 여성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으켰고, 이들에게 발언을 준비하고 앞에 나서는 시간은 자신을 공공의 장에 위치시키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여자들을 찢으려고 갈라놓으려닌 하는 체제”에서 “여자가 셋 이상 모이면 운동”이라는 유빈의 말은 과언이 아니다. 2019년 11월, 〈여명〉과 〈보스〉, 〈해쳐〉가 여성연구소와 함께 학술행사를 공동개최하며 설리와 구하라의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를 연 것은 활동력의 정점이었다. 여기에는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저는 셋 이상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면 다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명〉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운동이고. ‘우리끼리 친목 다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의 이런 지대 위에서 ‘우리 여자들끼리 친목 다지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되게 정치적인 의도가

27) 2019년 여름과 가을에는 소모임 구성원들이 주최하고 참여한 토론회와 집회가 다수 열렸다. 2019년 7월 19일 P대 사회대 학장(정치외교학과)과 행정학과 교수가 북 콘서트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P대 페미니스트들은 즉각 망언규탄과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2회 개최했다(8월 28일, 9월 4일). 이 집회에는 총여학생회 출신 졸업생은 물론이고 B시여성회 및 B시여성단체연합, P대학교민주화운동동지회 등 광범한 세력이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대 여교수회와 함께 개최한 다큐멘터리 〈김복동〉 상영회 및 감독 GV(9월 3일)에는 B시시민까지도 다수 참여했고 참가자들은 250여 명을 수용하는 대형 강의실 계단과 복도에 빼곡하게 앉아 영화를 관람했다.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유빈).

[위안부 집회에서 발언은 반일종족주의 북 콘서트 영상을 보고 문제가 되는 내용을 짝 정리를 해서.. 그때도 그 발언한 게... ‘언니 발언할래?’ ‘나?’ ‘어 해 줘!’ ‘어(웃음) 이렇게 했고(웃음) ‘한 번 해볼게 열심히 해볼게’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고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뭔가 행동할 수 있게끔 해 준.. 뭔가 앞에 나설 수 있게 해줬던 게 개네들이라서(윤정).

2022년 9월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인사건 추모집회는 교내에 페미니스트 그룹이 재가시화되는 계기였다(탁경륜, 2022). 사실 소모임 활동은 2020년에 코로나와 주요 구성원의 졸업과 취업으로 짧은 수명을 다했다. 하지만 두 동아리의 행동력은 2년간 매월 여성의 날을 의미하는 3800원을 모금해 청소년 지원 기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살아있었다. 와중에 신당역 사건은 이제 막 사회인이 된 참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절실한 문제로 다가왔다. 단톡방에서는 추모집회를 열자는 의견이 모였고, 학내 곳곳에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정문 앞에 추모 공간을 설치했다. 추도식에는 “이런 일이 있는 김에 친구들 보러” 먼 곳에서 KTX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고, ‘남초’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처지에 공감한 공대 출신 졸업생도 참여했다. 모두 소모임에서 만난 인연이었다. 대자보를 쓰는 공간에서는 “어른이 되면 장례식에서 만난대”라는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이 활동은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학생식당 노동자의 무기한 파업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거는 행동으로 이어졌다(2022.10.31.). 이 활동들에는 <한춤단>과 여성학협동과정의 학생들도 참여했으며, 소모임 구성원 일부는 소속된 대학원 학생회와도 상의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제 “친밀함의 공동체”는 추억을 공유하는 대학 친구들의 평범한 관계다. 소모임의 출발이 그랬듯 이 공동체는 특정한 정치적 행위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나 행위 양식을 가지는 집단이 아니다. 그러나 각각은 공적

영역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독립된 주체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함께 행동했던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나아가 “친밀함의 공동체”는 행위자들이 페미니스트 그물망에 속해 함께 존재하는 한 필요하다면 집결하여 함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각자의 자리에서²⁸⁾

“사회인”이 된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소속된 곳에서 새롭게 관계를 만들며 페미니스트 그물망을 조금씩 넓혀 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연은 ‘여성노동운동’을 상상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었고, 정연의 연결망은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가 여전히 ‘운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정연은 2019년 이후 소진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운동’ 대오의 바깥에서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 시간은 정연에게 젊은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자기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도, 제대로 협상하지도 못하는 존재임을 실감하고, 주변의 친구들 또한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던 중 마침 스쿨미투를 지원할 때 만난 활동가A가 “더 진화하고 싶다”며 스터디 모임을 제안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시작하게 된다. 둘은 누군가 한 명이 운동을 시작하면 무조건 함께 운동하기로 약속한 “동지” 사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다시 페미당이가현과 타지역 성폭력상담소 재직자와의 정기적인 만남으로도 연결되었다. 활동가A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다”는 정연의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과의 교류 활동”을 시작한 이가현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연은 “역전의 용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며 “노동자가 된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날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과거 소진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운동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모색하고 있었다.

28) 강운지의 글(2023)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B사에서 20대 여성이 노조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일단 네트워크라도 만들어서 교육을 한 다음에... (...) 제가 같이 만나던 친구들이 다 노동자가 되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만나지? 산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데 어떻게 만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노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랑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정연).

다른 한편으로, 2018년 격렬했던 미투운동은 각 계에 성평등 가치를 중심에 둔 여성 그룹을 가시화하는 변화를 불렀고, 연구참여자들은 바로 그곳에 소속되기 시작했다. 특정 직업군 내부에서 속속 등장한 여성 중심 공간은 “〈보스〉의 연장선”처럼 여성들끼리 친밀한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이어갈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항할 수 있게 돕고 있었다. 이러한 조직의 힘을 알았던 지선은 경찰이 되기 전부터 경찰 젠더 연구회²⁹⁾에 가입하기를 희망했었고, 입직 후 “알음알음 아는 사람 통해 들어”갔다. 그는 바로 그 공간에서 극단적인 남초 환경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곤란을 해소하고 있었으며, 조직 내 팽배한 여경에 대한 편견에 “여경들끼리 연대하는” 모습으로 대항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선은 인터뷰가 진행된 시기에 젠더연구회에서 한 여성 경찰이 처한 어려움에 공동명의로 문제 제기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 남성중심조직의 “미꾸라지”가 되겠다는 결심과 포개어져 있다. 그뿐 아니라 젠더연구회에서 다양한 위치의 선배들을 만나는 일은 ‘여성경찰’로 성장해 나가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사실 입직하고 되게 즐겁게 팀 생활을 하긴 했어요. (...) 재미없는 건 아니었는데 확실히 외로운 건 있었어요. 혼자 여경이니까 말 못 할 그런 사정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뽕은 말하는 거 다 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해소할 창구가 필요

29) 경찰젠더연구회는 2017년 경찰 간담회에서 조직 내 여경 대상 성희롱 문제 제기가 있는 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여경들을 중심으로 2018년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했던 거죠. 대학생 때처럼 (...) 그리고 또 여경들끼리 뭉쳐야... 그런 말을 들었거든 '여경의 적은 여자'라고...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님을 또 느끼는 창구도 필요했고... 또 여경들끼리 연대하는 그런 것도 필요했고... 어떻게 보면 보스의 연장선이죠(지선).

직업 내부의 개인적 실천이 페미니즘 관점의 확장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있다. 먼저 '페미니스트 교사'인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들의 교육 방침은 성평등 교육 반대와 페미니스트 교사를 비난하는 여론의 틈새를 벌린다. 연구참여자들의 페미니즘 교육이 지식 전달 그 이상이라는 점은 일상적인 지도에서도 드러난다. 의도적으로 민낯, 짧은 머리, 바지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연출하면서 여학생들에게 외모 가꾸기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 희연은 마치 자신이 여학생들의 "언니"인 것처럼 여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기도 하고, 페미니스트 학생을 보호할 방안을 미리 상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민은 스쿨미투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을 강요당하는 교사의 위치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한편, 학부 시절부터 꾸준히 채식 모임을 진행했던 지은은 채식 급식의 필요성을 고민하며 대학원에 진학했다. 학교 공간이 사회적 포용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식사 선택권이 필수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지은에게 채식 급식은 교육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및 타자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을 확장할 수 있는 일상적 방안이다.

여자 중학교라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학교는 제가 매일 수업을 구상하고 활동을 짤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도 사실 페미니즘도 그렇고, 제가 요즘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 이야기도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 다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웃음). (희연)

학교 3년 다니면서 확장한 날이 이틀 될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의 표본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 저는 그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 늘 턴트를 바르고, 늘 뭔가 이렇게 좀 화장을 한다면 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시영)

마지막으로 개별화된 실천 역시 존재한다. 경운과 한성은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자기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의 실천은 사소해 보이지만, 남성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곳의 일상적인 문화와 규율을 바꿔보려 시도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경운은 여전히 노골적인 여성차별의 문화가 남아 있는 사무실에서 자기의 지위를 활용해 특정 업무에 대해 “성비를 맞추”거나, “가사노동스러운 일들을”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 차별/성역할 문제에 신경을 쓴다. 또 자동차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한성은 주차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일부러 “여성전용주차장” 이야기를 꺼내 여성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현실에 관해 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다. 한성은 여성학 수업을 들은 이후부터 남학생들의 단독방에 적극적으로 그들의 여성혐오적 생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을거리나 영상을 공유해왔었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실천을 이어나가는 모습은 수경의 발언을 되새기게 만든다. 인터뷰가 진행되던 2022년 여름은 백래시가 한창이었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몇 년의 폭발적인 활동이 마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교내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수경은 선블리 “침체”를 말하지 않았다. 젊은 여성들에게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운동을 지나온 경험은 새겨져 있을 것이고, 그 여자들은 어디에나 있으며, “일상 속에서 자기만의 페미니즘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리라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경의 말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의 배움과 경험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남은 불씨는 필요한 때에 다시 불붙고 폭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저는.. 침체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 미투운동 집회도 가고 끝장집회도 가고, 그리고 혜화역 시위도 갔었거든요. 근데 [집회에 같이 참여했던 그 여자들이 다 어디로 증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시위했던 여자들이 다 일상 속에서 자기만의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각자 다양한 이슈를 맞이하면서... (수경)

6. 결론 및 함의

이 논문에서는 P대학 미투운동 사례를 통해 대학에 참여학생회로 대표되는 조직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더불어 미투운동 참여자들의 ‘미투 그 후’를 조명함으로써 강렬한 연결의 경험이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치적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토대이자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각 주체의 탄생 경로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운동 조직 출신 “뀐페미”의 활동을 조명하여 이들이 반성폭력 운동에 기여한 방식을 밝혔다. 운동권에서 축적한 특수한 훈련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학 여성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대학생-페미니스트를 연결하고 가시화하는 역량으로 발휘되었다. 그 뿐 아니라 이들은 특유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학외에서도 (대)학생-페미니스트 네트워크를 다졌고, 다양한 사회단체와 밀접히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는 2018년 상반기에는 P대학에서, 하반기에는 B시 전체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미투운동 및 여성운동이 각계각층의 운동경험과 분리되지 않으며 각각의 역량이 결합한 결과물임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겉페미”를 통해 대학 여성학 수업이 여성운동 주체를 육성하는 장이었음을 드러냄으로써 여성학이 실천학문으로서 가지

는 힘을 다시 한번 규명하였다. 학생들은 “원탁의 관계”를 통해 ‘자기’의 경계를 넓혔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의 책임을 나눠 가졌다. 이는 여성학이 사회참여적 시민 육성이라는 과제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페미니즘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존재의 공존을 도모하는 관점임을 고려한다면 운동주체 형성은 여성 문제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멈추지 않는 사회운동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구성원 간 연대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적 역량과 관점을 기를 수 있는 페미니즘 지식에 노출될 기회를 늘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단>의 활동은 대학의 권력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대학원생’이라는 위치성이 교수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간파로 이어지고, P대 미투운동 국면에서 해당 정체성을 중심에 둔 적극적 선전 활동으로 발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결합은 수평적 결속과 관계성을 체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 내부에서 선행되었던 성찰적 토의와 토론이 미투운동이라는 ‘실천’과 연결될 때 만들어지는 순간적인 폭발력을 드러낸다. <한중단>의 사례는 일상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성평등/민주주의를 논하는 다양한 자장이 사회운동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토록 한다.

다음으로 ‘P대페미’라는 미투운동주체 형성 및 미투운동 성과 도출에서 “페미니스트 스펙터클”이 전술적 효과를 발휘했음을 짚고자 한다. 교내에 페미니스트들이 ‘보여지는’ 장면은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의 백래시와 대비되며, 압도적 물량 공세를 목격한 힘은 대학에서 페미니스트로 활동할 수 있다는 확신과 안심감으로 이어졌다. ‘방 꾸미기’, ‘포스트잇 작업’, ‘대자보전(戰)’은 교내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에 대한 비난과 반대 여론을 무력화했다. 이는 대학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 자기의 경험을 발언하고 집합적으로 행동하는 배경이었다.

이 전술의 구사에는 대학 내 여성기구와 여성교원의 역할도 컸다. 대학 여성기구 및 여성교원의 주변화로 페미니스트 교원이 교내 성평등 문제에 대응하며 겪는 과중 노동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유현미, 2022a; 추주희, 2022). 선행연구가 드러내는 현실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 글에서는 여성교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가지는 역할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P대 성평등 네트워크>도 성평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교내 여성/성평등 기구 연합체였으며, 그중 하나인 여교수회는 2012년에 대학본부가 성폭력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리자 그 교수를 학과 밖으로 추방하는 활동에 성공한 적도 있다. 여성교원은 여학생 운동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 <페미회로>의 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인터뷰 시리즈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원의 활동 지원 사례가 등장한다(페미회로, 2019). <여명>의 직접적 결성 계기 또한 <성평등네트워크>의 총여학생회 재건 요청이었다. 따라서 대학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 구성원 간의 관계성을 확장하고, 그 ‘그물망’에서 여성교원의 역할을 질문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편, 논문의 본격적 분석대상은 아니었으나, P대 미투운동은 B시여성운동단체의 조직적 대응으로 시작됐으며, 여러 여성운동 세력은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을 견인하는 핵심 동반자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리부트 세대 페미니스트의 활동에서 드러나지 못했던 지역 여성운동의 공헌을 설명하며, 세대 간 연대가 P대 미투운동의 바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오랜 시간 비수도권 여성운동은 지체와 결핍의 공간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P대 미투운동의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운동의 활동력이 결코 성기지 않으며, 여성운동단체의 선전과 협력이 대학 미투운동 성과 도출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부산여성운동 역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마녀들의 카니발>에는 “부산 여성운동은 수많은 ‘전국 최초’ 타이틀을 지닌다”는 발언이 등장한다. 이는 서울지역의 여성주의 실천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비가시화되었던 비수도권 지역 여성운동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성

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다(최나현, 2022).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미투운동 참여자들의 ‘미투 그 후’를 통해 미투운동의 경험이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여학생 모임을 만들고, 그 틀을 토대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성의 공동체”는 최근까지도 학내 문제에 개입하면서 행동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자신을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연결망에서는 언제든지 정치적 실천이 배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인”으로 존재하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자신들을 페미니즘(교육) 실천 주체로 설정하고 주변의 질서를 바꾸어나가고 있었다. 이를 통해 “페미니스트 사회인”들의 일상적 행위가 페미니스트 육성에 이바지하고, 여성운동의 새로운 싹을 틔우는 씨앗임을 목격했다. 페미니스트 재생산과 여성운동의 지속은 ‘각자의 자리에서’ 흩뿌려지는 수많은 작은 실천들을 살피고, 독려하고, 연결하는 데에서 다시 출발할 것이다.

〈부표〉 2018년 1학기 P대학 미투운동 일지

날짜	
3. 8.	사회학과 교수에 의한 성추행 피해 미투(피해발생시점 1987년): 미투운동B시본부 주최 미투운동토론회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말하다>
3. 12.	예술대 예술문화협동과정 졸업생 예술문화영상학과 L교수 성추행 미투 (피해발생시점 2013년): 페이스북
3. 13.	다수 피해자들(14일까지 합계 15명)의 예술문화영상학과 L교수 성추행 미투: 페이스북과 트위터 (3월말까지 총 20명의 피해자가 피해 고발. 1990년대에도 피해자가 있었음을 확인)
3. 14.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L교수 제외 전원) 교수비상대책위 구성 및 입장문 발표
3. 15.	예술문화영상학과 학생 자치비상대책위 구성, 성명서 발표
3. 20.	인문대 언어정보학과 K교수 성추행 피해자(피해발생시점 2015년) 인권센터 상담
3. 27.	L교수 연구실 주변 성범죄규탄 유인물 부착
3. 27.	K교수 피해자 인권센터 사건 접수
3. 28.	본부앞 집회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목소리 #들어라 우리의 목소리를>
3. 28.	국제학부 M교수(외국인) 성희롱 발생
4. 3.	국제학부 M교수 계약 해지
4. 6.	여성연구소 입장문(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라) 발표
4. 11.	여성연구소 소장 B일보 컬럼(대학내 미투 운동과 성평등 교육) 게재
4. 17.	K교수 피해자 기자회견
4. 17.	대학생원 지지자 모임 <한중단> 결성 및 활동 시작 (대자보 작성,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등)
4. 18.	K교수 피해자 JTBC뉴스룸 인터뷰
4. 19.	여교수회 미투운동지지 성명
4. 23.	총장 미투운동지지 답화문(1차)
4. 23.	졸업생들 미투운동지지 현수막 다수 부착
4. 23.	국문과 대학원생들의 미투운동 지지 성명
4. 24.	미투운동B시대대책위 총장면담(캠퍼스페미니스트네트워크도 참여)
4. 24.	인문대 교수회 입장문 발표
4. ?	사회학과 교수진 성추행피해자(3.8. 미투운동토론회) 위로문 전달*
4. 26.	정문 앞 포스트잇 부착(ME TOO WITH YOU)
4. 28.	비정규교수노조 지지성명 발표
4. 30.	철학과 대학원생 미투운동 지지성명 발표
5.3/18/31.	여성연구소 · 사회학과 공동주최 <미투운동의 현황과 과제 연속강연>(3회)
5. 4.	교수성폭력 피해자-총장 면담
5. 16.	사회학과 대학원생 미투운동 지지성명 발표
5. 30.	K교수 연구실 주변 성범죄규탄 유인물 부착
6. 27.	L교수 해임 결정
7. 17.	K교수 해임 결정
8. 13.	총장 미투운동지지 답화문(2차)

* 사회학과와 교수의 경우 가해자가 10여 년 전에 사망했고 현교수진 중 성추행 발생 당시 교원이었던 사람이 없는 사정 등으로 미투운동의 대의에 공감하며 피해자를 위로하는 내용의 문안을 전달했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강남식. 1997. “영국 여성노동정책과 여성들의 ‘자매애’: 1840~1880년대.” 『한국여성학』 13(1): 51-85.
- 권김현영. 2018. “미투, 반성폭력 운동의 윤리-정치적 전환.” 『문학동네』 95: 329-347.
- 권명아. 2018. “지역여성의 비가시화, 선거를 통한 지역 전유의 관습-보결선거 전후의 젠더 정치를 중심으로.” 전남대링크+사업단, 전남대대학원혁신본부 주최 학술 행사 「페미니즘. 지역, 정치 - 빈집의 여성사회문화학」 자료집(2021.8.17.).
- 권은채. 2022. “참을 수 있는 공동체의 ‘가벼움’: 페미니즘 책모임 ‘위폐’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소고.” 『韓國文化人類學』 55(3): 149-190.
- 김보명. 2008. “1990년대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여성주의 정치적.” 『페미니즘연구』 8(1): 191-217.
- _____. 2018.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사회』 118: 99-138.
- 김엘림. 2016.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法學論集』 20(3): 281-320.
- 김 영. 2020. 『주부협정과 파트타임 노동』.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 원. 2004. 『여공 1970 그녀들의 반(反) 역사』. 서울: 이매진
- 김주희. 2017. “‘독학자들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지식문화 현재성에 대한 소고. 신간 페미니즘 서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3: 351-379.
- 김태영·유주원. 2022. “일상화된 혐오와 생존의 페미니즘: 지역 청년여성들의 페미니스트 되기.” 『안과 밖』 52: 157-188.
- 김태현. 2018. “대학 내 위계형 성폭력.” 『문화과학』 95: 100-116.
- 김하영. 2022. “지역 거주 20~30대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인식과 실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젠더와문화』 15(2): 133-168.
- 김혜경. 2022. “페미니즘 리부트와 지역 여성운동: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8(1): 179-211.
- 고은혜. 2019. “웹사이트 위마드의 ‘홍자’ 담론 분석: 굴절된 자기혐오라는 성공에의 동력.” 『미디어, 젠더&문화』 34(4): 53-97.
- 박경태. 2018. “성폭력 교수 구하기에 맞선 학습권 투쟁, 9년의 경험과 기억 이야기.” 『경제와 사회』 120: 36-89.
- 박정미. 2002. “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위원회’ 사례 분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영경·유현미·전희경·최나현. 2019. “페미니즘이 대학을 구한다.” 『창작과비평』 47(2): 275-304.

- 손희정. 2015. “페미니즘 리부트.” 『문화과학』 83: 14-47.
- _____. 2016. “젠더戰과 퓨리오-숙들의 탄생.” 『여/성이론』 34: 35-59.
- _____. 2020. “다시 물질, ‘디지털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 기획에 대한 노트.” 『문화과학』 104: 49-72.
- 신상숙. 2007.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상숙 · 김수아 · 양현아 · 최은영 · 노정민 · 박선영 · 정지원. 2019.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엄기호. 2014. 『단속사회』. 서울: 창비.
- 엄혜진. 2009. “운동사회 성폭력 의제화의 의의와 쟁점.” 『페미니즘연구』 9(1): 31-78.
- 오혜민. 2022. “침묵으로 쓰는 백래시 시대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여성학논집』 39(1): 3-33.
- 오혜진. 2022.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페미니스트-되기의 해방과 곤경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5(1): 39-79.
- 우지안. 2018. “미투, 살아남은 자리에서 말하기 = ‘권 배제’와 연대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65: 74-99.
- 유현미. 2018. “성차별적 위계구조의 담장 넘기: ‘교수 갑질’ · 성희롱 사건 대응활동과 대학 미투운동의 현재.” 『경제와 사회』 120: 90-131.
- _____. 2022a. “대학 성폭력의 지속과 성별화된 능력주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2b. “청년 여성들의 성평등 실천, 그 가능성과 한계: 대학 미투 운동 분석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2(4): 5-47.
- 이미정 · 박종석. 2019. “대학 내 성희롱 · 성폭력 고충처리 현황과 문제.” 『이화젠더법학』 11(2): 59-90.
- 이정인. 2021. “페미니즘의 교차적 구성: 비수도권 대학 내 페미니즘 모임에 대한 참여 관찰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숙. 1993.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경험 세계적 연구 - 섬유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용립 · 이나영. 2018. “‘포스트/강남역.’” 『페미니즘 연구』 18(1): 181-228.
- 조주현. 2008. “대학내 교수성희롱의 성차별적 특징: 세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 219-258.
- 조혜영. 2017. “대중문화를 사건화하는 페미니즘 서적.” 『아시아여성연구』 56(2): 305-313.
- 지영경. 2018. “1985~2005, 다시 만난 부산대학교 여성운동.” 부산대학교 성평등네트워킹 제3차 심포지움 「시대를 넘어 페미니스트, 만나다」 자료집(2018.11.9.).

- 최나현. 2022. “지역×청년×여성의 여성주의 실천 경험에 관한 연구 - ‘충전소’를 만들고, ‘기피시설’로 여겨지다.” 『여성학연구』 32(1): 73-108.
- 최정은. 2013. 『오월의 사회과학』. 파주: 오월의 봄.
- 한국연구재단. 2023.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분석보고서』.
- 한중태. 2014.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 연구: 활동가들의 ‘위기’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추주희. 2022. “지방대 학문후속세대의 여성학하기: 전남대 여성연구소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1(2): 205-246.
- 추지현. 2019. “페미니즘들: 변화, 위해, 소통의 경험들.” 『여성학논집』 36(1): 59-91.
- 퍼트남, D 로버트. 2006.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청시(역). 서울: 박영사
- 플릭, 우베. 2009. 『질적 연구방법』. 임은미·최금진·최인호(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 툰슨, 에드워드 팔머. 2000.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나종일(역). 파주: 창비.
- 한국연구재단. 2023. 『2022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 2023. 『2022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한준단. 2018. “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화과학』 95: 117-139.

(2)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강윤주. 2021. “가스를 수 없는 페미니즘, 멈추고 싶을 때까지 앞으로.” 〈한국일보〉. 2021.03.04. <https://m.hankookillbo.com/News/Read/A2021030409220005416> [검색일: 2023.8.20.]
- 강윤지. 2023. “미투 이후의 연극.” 〈일다〉. 2023.08.28. <https://www.ildaro.com/9709> [검색일: 2023.8.28.]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22. “‘페미니즘 정치’ 얘기하며 버티는 사람 있단 희망 주고 싶다.” 〈오마이뉴스〉 2022. 11.0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8806 [검색일: 2024.3.16.]
- 여성신문 뉴미디어부. 2016. “[2016 페미니즘 이슈 ⑩] 페미니즘 도서 열풍.” 〈여성신문〉. 2016.12.14. [검색일: 2023.8.10.]
- 페미회로. 2019. “전북대라는 페미니즘 황무지를 갈다, 인터뷰.” 〈페미회로 아카이브〉. 2019.10.12. <https://femicircuit.wordpress.com/> [검색일: 2023.8.10.]
- 탁경륜. 2022. “‘신당역 사건’은 사법부와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죽인 것”. 〈부산일보〉. 2022.09.18.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91818154677661> [검색일: 2024.2.10.]

Abstract

Seeting Points of the University Me-Too Movement
– an case study on “P” university in “B” city

Choi, Na-Hyun
(Pusan National University)

Kim, Yo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an case study on “P” university Me-Too Movement, aiming at identifying the factors of the subjects making of the university women’s movement. In 2018, “P” University did not have a stable female student organization, but during the Me-Too movement, ‘three subjects’ appeared, based on the relationship and training in women’s studies class and the student movement group. In 2018, “P” university campus was filled with countless post-its, hand-written posters, and banners supporting Me-Too movement, this “feminist spectacle” tactic boosted the movement. Me-Too movement participation experience is not a one-time experience but a long lasting experience continuing to feminist network and practices in their daily lives in their own ways. The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revitalizing the women’s movement in universities and the continuity of the Me-Too movement in our lives.

Key words: University Me-Too Movement, Female student movement, Women’s studies, Student activist, Feminist spectacle

- ┃ 투 고 일 : 2024년 3월 17일
- ┃ 최초심사일 : 2024년 4월 8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25일